



『哲學論題』의 多元的인 分類方法에 對하여

〈D. D. C., K. D. C. 및 N. D. C. 의 綜合的인 比較檢討〉

千 惠 鳳

「哲學論題」의 多元的인 分類方法이란 同一主題이면서도 分類表의 組織에 따라 東西洋各國哲學(主로 西洋의 各國哲學)아래 分類하는 境遇와 哲學論題(D. D. C. 15版은 哲學體系, K. D. C.는 諸哲學, N. D. C.는 哲學各論) 아래에 分類하는 境遇, 또 同一主題이면서도 그 主題의 內容이 個人的 著作이나, 여러 著者들의 著作을 綜合 또는 概說한 것이나에 따라 各各 兩者에다 分離시켜 分類할 수 있는 境遇等의 여러가지 相異한 分類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本題目에 對하여 論述하는 目的은 첫째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分類表에 따라 各各 다른 分類方法을 D. D. C., K. D. C. 및 N. D. C.에서 綜合的으로 比較檢討하므로써 그중 가장 適當한 分類方法을 東書用 D. D. C. 展開表에 適用시켜 보려는 데 있고, 둘째는 現在 우리나라 圖書館界가 이들 分類表를 混用하고 있는 關係로 初步의 圖書館實務者 및 後學者들이 이와같은 多元的인 分類方法의 實際와 理論을 더욱하고 理解하여 어떤 分類表를 使用하든간에 迅速正確한 分類를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여러 分類表의 哲學論題와 各國哲學間의 相異한 分類方法에 對해서만 그 長短點을 들어 相互 比較檢討하는데 局限하며 各分類表의

分類組織體系에 對한 比較研究 따위는 後日로 미루고 觸하지 않음을 말해 둔다. 卽 例를 하나 든다면 D. D. C.의 分類組織이 다른 分類表보다 助記性이 잘 考慮되어 있고 또 詳細히 展開되어 있으며 가장 알 투 메이트한 點 等에서는 그 어느것보다도 越等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나, 反面에 110~120의 形而上學, 140의 哲學論題 및 180~190의 東西洋各國哲學이 서로 分離되어 知識의 組織的인 編成이라는 見地에서 본래는 非理論的인 分類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等 따위의 問題는 여기서 論外로 한다는 것이다.

各 分類表에 따르는 分類方法을 하나하나씩 들어 그 長短點을 比較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1) D. D. C., 15版

哲學論題라는 各辭는 分類表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지만 大體로 哲學的인 體系, 學說 및 그 論題에 對한 歷史(D. D. C. 16판 109 아래의 註 參照)를 이에 包含시켜 生覺해도 無妨한 것 같다. 그런데 이 各論題에는 個人著述의 哲學體系와 學說도 있고 또 여러 著者들이 著述한 哲學體系와 學說을 綜合 또는 概說한 것도 있는 것이다. 더욱기 後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國境을 超越한 여러나라 著者들의 것을 綜合한 것도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美國의 James와 Dewey, 英國의 Schiller, 獨逸의

Vaihinger 와 Mach 等の 學說을 綜合하여 解説하고 評論한 「實用主義」와, (1) 英美 人의 學說을 綜合觀說하고 評論한 「現代 實在論ノ研究」(2)를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境遇 140의 哲學論題 아래에 該當하는 著作品을 全部 180~190 아래(主로 190아래 該當된다) 分類하게 되는 D. D. C. 15판에서는 例에서 든바와 같은 國境을 超越한 著者들의 單一論題에 對한 學說과 體系의 綜合著述을 어떤 한 나라의 哲學에 分類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適合한 일이다. 이에 Sayers의 分類一般規則에 따라 그중 特別 重要한 學說과 體系를 쓴 著者가 屬하는 나라의 哲學아래 分類한다는 가 또 相互同等한 程度의 것은 最初의 著者가 屬하는 나라의 哲學아래 分類를 할 수 있지만 둘 혹은 셋 以上の의 여러 著者가 쓴 것은 180과 190의 總記에 分類하게 됨으로 여기에는 範圍가 大端히 좁은 單一主題로부터 比較的 複雜하고 또 廣範圍한 主題에 이르는 作品들이 너무나 雜多하게 모이게 되는 結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哲學論題에 對한 主題別 分類를 無視하고 一括的으로 各國家의 哲學아래에 集中시키는 分類體系를 採擇한 D. D. C. 15版의 短點이기도 하다.

그러나 哲學論題中 한 나라의 여러 著者들의 綜合著述은 그대들이 屬하는 나라아래 分類할은 무말할 나위도 없다. 例를 들면 美國의 Peirce, James, Dewey. 등의 著者가 쓴 實用主義 學說의 綜合觀說書는 바로 191에 分類하는 것이다.

한편 長點으로는 各哲學論題를 180~190아래서 나라 別로 一元化된 分類를 할 때 同一한 著者의 作品이 特殊分野의 哲學主題(心理學, 論理學, 倫理學等) 및 形而上學을 除外하고는 한곳으로 集中되게 되

로 著者別 또는 나라別로 利用할 때는 매우 便利하며 또한 分類業務에 있어서도 著者의 國籍만 알면 쉽사리 한 곳에다 모두 分類하게 되므로 앞으로 言及할 D. D. C. 14版 및 16版 보다 簡易한 點이다. 例를 들면 Bacon의 經驗論은 16판에 있어서와 같이 144.2가 아니고 그의 다른 一般哲學作品과 함께 192아래 分類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Descartes의 經驗論은 144.2가 아니고 194이며, Nicolaus의 神祕論은 149.3이 아니고 189이며, Fichte의 觀念論은 141이 아니고 193이며, Kant의 批判論은 142가 아니고 193에 分類하게 되므로 그의 特殊分野 및 形而上學의 哲學主題를 除外한 모든 哲學作品이 한곳으로 集中되는 關係로 著者別로 利用할 때는 매우 便利하며 또 分類業務도 簡易하다. 이러한 長點은 特別 注目할만한 것으로 D. D. C. 14版에서 이와 같은 分類方法으로 果斷性있게 바꾸었던 것도 여기에 歸因하는 것으로 生覺된다.

(2) D. D. C. 14 및 16版

D. D. C. 14 및 16版은 15版과는 그 方法이 달라서 哲學體系와 學說에 對한 論題를 140 아래 分類하고 180~190 아래에는 特殊分野 및 形而上學의 哲學主題와 140의 諸論題를 除外한 一般哲學作品을 全部分類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 있다. 따라서 이 境遇는 各個人 또는 各國의 哲學作品이 한 곳으로 集中되지 못하고 140과 180~190으로 서로 分離되는 短點을 招來

(1) 石原純, 恒藤恭, 三木混 共編.

實用主義, 東京 河出書房, 1938(二十世紀思想 第2卷)

(2) 大島正徳, 現代實在論ノ研究, 東京 至文堂, 昭和18(1943)

한다. 예를 들면 Berkeley의 觀念論은 그의 一般作品이 모여 있는 192에서 分離되어 141에 分類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Fichte의 觀念論도 193에서 分離되어 141에, Comte의 實證哲學도 194에서 分離되어 146. 4에, Cousin의 折衷主義學說도 194에서 分離되어 148에, Schopenhauer의 厭世觀도 193에서 分離되어 149. 6에 各各 分類하게 된다. 그리하여 15版에서의 長點이 여기서는 短點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에 附言할 것은 180 아래에서도 哲學體系 및 學說은 140아래의 該當論題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現代哲學 및 綜合作品인 것에 限하고 古代 및 中世哲學에 있어서는 各各 180 아래의 該當主題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다(14版의 182. 1, 182. 3, 186, 189. 4, 189. 5 아래의 주 참조) 예를 들면 懷疑論으로서 現代哲學에 屬하는 것은 149. 73에 分類하며 古代哲學에 屬하는 것은 186에 分類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折衷主義에 있어서 古代 및 中世哲學에 屬하는 것은 186. 3, 現代哲學 및 綜合作品은 148에 分類한다. 外에 또 하나의 短點으로서 는 哲學體系 및 學說을 다른 一般哲學 作品과 함께 다른 各個人의 著作은 180~190 아래 分類하게 되는데 이 境遇 同一論題에 屬하는 作品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140아래 集中시키지 못하고 不得已 180~190 아래에 分類하게 되므로 같은 內容의 主題가 서로 分離되는 點이다.

上記한 諸短點을 要約하면 個人 또는 한 나라에 屬하는 作品이 二元的으로 分類되어 相互分離되며 뿐만 아니라 分類 및 編目業務에 있어서도 15판 보다 複雜함을 보이기 어렵다.

反面 長點으로서 는 個人別 나라別에 拘

碍되지 않고 同一한 論題의 體系와 學說 및 그 歷史를 한곳에 全部 集中시킬 수 있으며 또 國境을 超越한 여러 나라 著者들의 同一論題에 對한 綜合著述까지도 亦是 140 아래에 集中시키게 되므로 어떤 論題 別로 圖表를 利用하거나 檢索하는 境遇는 매우 便利하다.

(3) N. D. C.

N. D. C.에 있어서는 그 分類表組織이 D. D. C.와 다르기는 하지만 元來 주로 D. D. C.를 根據로 하고 編纂했기 때문에 適用되는 分類原則問題도 D. D. C.를 模倣하고 있다. 그런데 分類問題를 言及하기 前에 한가지 말할 것은 N. D. C.에 있어서는 哲學各論아래에 D. D. C.의 哲學論題에 該當하는 것이 包含된 以外에도 形而上學과 論理學이 D. D. C. 보다 더 包含되어 있으며 이 哲學各論이 D. D. C.의 哲學論題와 같은 性質을 띠고 있다. 따라서 D. D. C.에서 哲學論題와 各國 哲學間의 分類限界問題가 여기서는 哲學各論과 各國哲學間의 分類限界問題로 되게 되는 셈이 된다.

N. D. C.에 있어서 哲學各論과 各國哲學間의 分類限界問題는 D. D. C. 15版과 14版(或은 16版)의 分類方法의 折衷的인 使用에 依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서 無妨할 것이다. 卽 哲學各論 아래의 諸論題에는 그 主題에 對한 여러 著者들의 學說, 體系의 綜合著述 或은 概說과 歷史로서 各國哲學 아래 分類할 수 없는 것만을 모으며, 特殊主題에 對한 哲學作品을 除外한 個個人의 論題, 體系, 學說 및 其他 著述(著者의 思想에 對한 研究論評 및 그의 著作集 등)은 設使 其中 哲學各論의 範圍에 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拘碍되지 않고 全部 120~130의 各國哲學 아래서 分類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Reid의 直覺論은 115.7이 아니고 133.35에 分類하고, Locke의 感覺論은 115.5가 아니고 133.25에 分類한다. 그러나 Chestov, Berdyaev, 및 péguý의 神秘主義學說에 對한 綜合概說 및 評論은 (3) 115.7, 船山信一の 現代唯物論哲學概說은 111.6에 各各 分類한다. 이와같은 N. D. C.의 分類方法을 더 具體的으로 D. D. C.와 比較檢討한다면 主로 D. D. C. 15版을 根據로 하여 되도록이던 著作品을 한 나라아래서 個人別로 一括集中시키려는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고 분수 있으며 다만 이 15版에서 여러 나라 著者의 單一論題에 對한 綜合的인 概說書인 關係로 한 나라아래 또는 어떤 個人에게 分類할 수 없는 것을 190의 總記에 收集하는 것에 對해서만 D. D. C. 14版(或은 16版)의 分類方法을 適用하여 哲學各論아래 收集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서 過히 支障이 없을 것 같다.

(4) K. D. C.

K. D. C.에 있어서도 分類表의 組織이 D. D. C.와는 多少 나르고 도리어 N. D. C.와 相似하지만 이 亦是 D. D. C.를 根據로 하고 編纂했기 때문에 適用된 分類의 原則問題도 D. D. C.에 依據하고 있는 것이다.

D. D. C.의 哲學論題에 該當하는 名辭로서 여기서는 諸哲論「哲學諸體系」이라는 名辭를 使用하고 있으며 諸哲學과 各國哲學間의 分類限界問題는 D. D. C. 14版의 分類方法을 따르고 있다. 或 어떤 사람이 아무런 註도 없고 編者도 現在 없는데 어떻게 그와같이 判斷을 할 수 있느냐고 疑心을 품을런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斷定의

唯一한 根據는 첫째 筆者가 그 스승 아래서 弟子로서 教育을 받고 十餘年이나 그 方法에 따라 圖書를 整理해 왔다는 事實과 들켜는 K. D. C.가 1947年, D. D. C. 14版이 1942年, 15版이 1951년에 各各 發刊된 年代로 推定하더라도 能히 首肯할 수 있는 問題이다. 이와같이 이 K. D. C.가 本來 D. D. C. 14版의 分類方法을 採擇하고 있음은 再言을 要치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方法을 좇아야 된다는 것을 強調할 수는 없다. 圖書館에 따라서는 現分類體系를 修正添削하지 않고도 別途의 融通性있는 分類方法을 採擇할 수도 있기에 문이다. 即 D. D. C. 15版과 14版(或은 16版)을 折衷使用했다고 분수 있는 N. D. C.의 分類方法에 依해서도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適用範圍에 있어서도 D. D. C.의 哲學論題以外로 N. D. C.와 같이 形而上學까지를 包含하여(但, N. D. C.의 論理學은 이에서 除外함) 各主題에 對한 여러 著者들의 學說 및 體系의 綜合著述과 歷史로서 各國哲學아래 分類할 수 없는 것만 이에 分類하고, 個個人의 것은 全部 120~130의 各國哲學 아래 分類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留意할 것은 最初에 擇한 分類方法에 따라 始終一貫으로 圖書를 整理하여야만 된다는 點이다.

以上으로서 여러 分類表의 哲學論題와 各國哲學間의 相異한 分類方法을 하나 하나 比較 檢討해보았으나 그중 筆者로서는 D. D. C. 15版과 14版(或은 16版)의 長短點을 適切히 取捨하여 折衷使用했다고 보는 N. D. C.의 分類方法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이 分類方法을 東書用 D. D. C. 展開表나 또는 앞으로 編纂되어야 할 우리나라 固有의 分類表에 있어서도 充分히 考慮되

고 反映되어야 할 問題로 生覺된다. 그리고 이에 附屬할 것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圖書館에 따라서 어떠한 分類方法을 擇해도 좋으니 一旦 採擇된 方法만은 그 때로 잘 持續되어야 한다는 點을 다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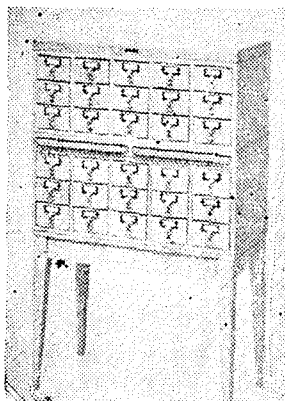
번 強調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提案에 未備한 곳, 어긋나는 點이 있으면 忌憚없는 여러분들의 助言과 協調와 指導가 있기를 바란다. 끝

(筆者 東國大學校 圖書館 司書)

世豐의 圖書館用品

圖書館의 効率的인 活動은 設備와 用品의 優劣에 左右되는 수가 많습니다. 不合理한 形態로서 實情에 맞지않는 用品의 採用은 非能率的인 뿐더러 高價의 浪費를 招來하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弊社는 圖書館의 使命과 用品等の 特殊性을 考慮하여 專門的인 研究와 깊은 理解로서 品質優秀한 標準規格의 圖書館 備品, 用品의 專門業으로 誠實과 서비스를 “ motto ”로 하고 있습니다.



營業品目

各種카드類, 各種圖書帳簿類, 各種書架, 閱覽테이블, 同椅子類, 司書冊床, 카드복스, 雜誌架, 책꼬지, 其他 圖書館 用品 製造 販賣

標準規格의 圖書館用品專門

世 豐 洋 行

서울特別市西大門區巡和洞三八

電話本局②9034番